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0.(월) 06:00 <4.20.(월) 석간> 배포 2026. 4. 17(금)

국민과 기업의 불편, 직접 듣고 바로잡는다

- 누리집,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 통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
- 익명 제안도 허용... 국민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창구는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창구다.

산업부는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불이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누리집(SNS 연계),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된다. 구체적인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제안 접수처 >

- 누리집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산업통상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배너 클릭
  * 네이버,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산업통상부'를 검색하여 '누리집' 연계
  ※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인스타그램(instagram.com/motir.go.kr), 페이스북(facebook.com/motirnews)
- 전화 / 이메일 : 1577-0900 / mecho1203@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315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제안은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❶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 ❷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 얻는 사례, ❸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❹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❺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 필요한 사례, ❻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정상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선별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를 병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곧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산업부는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끝까지 찾아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5520)
		담당자	서기관	조기훈 (044-203-5525)
			사무관	이수연 (044-203-5521)
	민원팀	책임자	팀 장	김학배 (044-203-4160)
		담당자	사무관	노영목 (044-203-41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